

기획

누수·파손·갈라짐… 건물 노후화로 몸살 앓는 ‘국제캠’

국제캠퍼스 공간 개·보수 문제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국제】 단과대학들이 건물 개·보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물 파손부터 갈라짐 현상 등 개·보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관련 예산은 부족해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해빙 시기가 겹쳐 건물 누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 건축된 공과대학 관·외국어대학관은 상황이 심각하다. 외국어대학관은 지난 1982년 완공된 이후 큰 규모의 리모델링이 한 차례도 없었다. 때문에 건물 내·외벽 부식 정도도 심각한 상태다.

외국어대학 행정실은 ‘건물 구조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노후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외국어대학 행정실 오상민 실장은 “지난달 26일 관리과에서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해 A동 기둥 하나의 내부 철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런 노후된 건물의 문제점은 봄철 해빙 기나, 장마철에 두드러진다. 3층과 4층의 강의실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이밖에도 건물로 비의 큰 균열이나 B동 연결통로의 벽 이격 등은 안전점검 결과와 별개로, 학생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변형진(한국어학 2013) 교수는 “전체적으로 외국어대학 시설은 매우 낙후됐다”며 “학교 측에서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준다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외국어대학은 지난해 개·보수 공사 항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관리팀에 요청했으나 편성받지 못했다. 현재 별도 지원금액을 배정받은 상황이지만, 최우선으로 여름방학에 건물 내·외부 페인트 작업 정도만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금액 역시 실질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공과대학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도 개·보수 예산 요청서’에 따르면 공과대학에서 요청한 공사 항목은 총 10가지다. 이중 절반 이상이 최소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요청됐던 항목이다. 공사항목은 방수, 시청각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등 행정실에 매년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이다.



공과대학에서 요청한 공사 항목은 총 10가지다. 이중 절반 이상이 최소 3년 이상 반복적으로 요청했던 항목이다.

공과대학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수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C동 옥상 전체와 A동 옥상 일부를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동 아리방과 B,C동 4층 계단실, 실현실 등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장실 문이 없어 내부가 훨히 보여 이용자에게 당혹감을 주는데다, 주변에 악취 또한 상당하다. 흥준호(원자력공학 2011) 교수는 “여름에 건물 내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건물 자체가 오래돼 잦은 균열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행정실 이용석 계장은 “관리과에서 방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건물 옥상 표면의 타일 낙하문제와 같이 ‘안전’에 관련해서는 즉각 대처해준다”며 “하지만 모든 개·보수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개·보수 수요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공과대학·체육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상타일 보수공사, 지난해 전자정보학에서 진행한 외벽 타일 공사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면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자정보대학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기존의 전자정보대학관 또한 외벽이 낡아 타일 낙하의 위험성이 있어 공사를 진행했다”며 “시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구관의 누수 현상이나 외벽 타일 보강공사 등은 관리과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관리과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우선 ‘안전’에 관련한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과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캠퍼스 건물들이 노후화됐고 원래 건물의 유지 및 개·보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주가예산을 요청해서라도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보수 예산 책정은 관리과에서 각 단과대학의 요청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평가한 뒤, 기획예산팀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편성하고 있다. 기획예산팀 정구승 팀장은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특성상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단과대학에서 요청사항을 받기는 하지만 대학본부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과대학과 외국어대학의 요구사항은 ‘SPACE21 사업’이 예정돼있어,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기획예산팀 박재성 계장은 “SPACE21 사업 등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을 생각해야 하는 예산심의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SPACE21 사업 자체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해당 단과대학의 구성원은 당장의 불편함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내해야 할 듯 하다.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실입니다.
벚꽃이 피어나는 이 봄, 행복한 대학생활하고 계신가요?

학교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기 원하는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문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업검사

Holland 성격색형검사

능력, 성격 및 가치관을 고려한 나의 진로유형 알아보기

면접? 나의 진로 및 성격이 궁금할 때 알아보는 검사

NEI 진로탐색검사

진로 및 학업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면접? 진로홈페이지 차시성행과 맞지않아 전선택이 고민될 때

NEI 학습유형검사

학습과 관련된 성과, 철학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유형 파악하기

면접? 공부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양한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상과 적응양태에 대한 이해를 도움

면접? 나의 현재 성격상태가 궁금할 때 [우울,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TO]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명기하여 나의 생각과 강점

면접? 들어 대한 이해에 도움

NEI 학습유형검사 [MBTI]

성과유형검사 [MBTI]

성과와 관련된 성과, 철학을 토대로 자신의 학습유형 파악하기

면접?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